

노인이 행복한 충남

최은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 연구위원

I. 서론

지금은 장수의 시대로 인생 70세를 살기 어렵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벌써 80세에 도달하여, 퇴직 후 수십년의 노년기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에는 인구 대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에 비해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2008년에 노인 인구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 현재 14.6%를 넘어 노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기노인보다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평균수명의 증가가 1980년대 65세에서 1990년대 71세, 2009년 80세로 빠르게 증가¹⁾하여, 인간의 생명연장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지만, 어차피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기에 늙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마지막까지 다다른 속도를 줄이고,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고 의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사는 동안 삶의 질을 얼마나 높게 잘 유지하여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보람되며, 국가적으로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보면 보편적인 노인들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흡한 실

1) 통계청, 「2007 생명표」, 「2009 한국의 사회지표」 기대수명 추이 및 기대여명 자료.

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계, 건강, 주택, 소외와 고독, 무료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는 날로 심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노인의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는데 비해 노인은 소외와 고독 및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치매, 독거, 장애인 등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자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만2천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이 25%²⁾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는 77만2천여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15.4%이며, 전체 장애인 수 대비 34.4%³⁾로 나타나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이 제한되며,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 1인가구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집단이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전체노인 중 3.3%의 비율을 산정하여 추계하고 있어 2010년 현재 17만6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1인가구의 1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충남은 독거노인 6만4천여 명, 요보호노인 5만7천 여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12만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008). 또한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46만9천명⁴⁾의 규모로, 충남도도 치매유병률 8.6%를 적용하면 2만6천여 명의 치매노인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수를 산정하면 치매노인과 그로 인한 부양부담을 느끼는 도민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남은 65세부터 69세까지의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도 84.5명(한국자살예방협회, 2008)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인 자살사망률⁵⁾은 73.6명으로 전체 자살사망률⁶⁾ 24.8명의 3배 이상인 것(보건복지가족부, 2009)을 생각하면 충남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 주거, 장기요양, 고용, 권익보장 정책 등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인 민-관의 역할 및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에 대해

2)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등록현황」, 2008

4) 「2008년 치매노인 유병률조사」 결과

5) 노인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6) 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관리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고용, 전직 창업지원 및 공적 사적 연금 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준비된 노후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등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충남의 노인인구수가 14%를 넘는 시점인 2008년에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고, 민선5기 공약 중 노인복지 분야는 기존의 노인복지인프라를 개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성공적인 고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⁷⁾.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이 사회복지 각 영역의 관계망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이나 인력은 변화가 없으며, 공무원 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동향에 따라 노인복지관련 인력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업에 대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여력이 없다. 특히 보편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이 미흡하며,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인 경로연금 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충남 노인인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예산과 함께 제시하여 충남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행복경로당 조성을 위한 공동급식, 직업교육, 신문보급, 정보화 사업 실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독거노인 행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이동목욕탕, 빨래차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II. 충남 노인인구 특성 및 정책 현황

1. 충남 노인인구 현황

충남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08년 이래 점증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2백만여 명의 인구 중 30여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6%로 나타났다

〈표 1〉 충청남도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

연도	충남도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2008	2,053,791	293,688	14.3
2009	2,075,249	301,248	14.5
2010	2,090,902	305,345	14.6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09. 12월 말 기준

충남의 노인인구는 30만5천여 명으로 남성노인은 12만3천여 명, 여성노인은 18만1천여 명으로 여성노인이 많으며, 천안시 14.2%, 아산시 8.9%, 논산시 8.1%, 당진군, 공주시, 서산시가 각각 7.4%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충청남도 지역별 노인인구 현황

구 분	노인인구 계	성 별		노인인구 비율
		남 성	여 성	
충청남도	305,345	123,690	181,655	100.0
천안시	43,408	17,359	26,049	14.2
공주시	22,461	9,174	13,287	7.4
보령시	19,115	7,792	11,363	6.3
아산시	27,193	11,034	16,159	8.9
서산시	22,650	9,217	13,433	7.4
논산시	24,643	9,925	14,718	8.1
계룡시	2,971	1,078	1,893	1.0
금산군	12,874	5,123	7,751	4.2
연기군	13,155	5,284	7,871	4.3
부여군	18,783	7,642	11,141	6.2
서천군	15,818	6,283	9,535	5.2
청양군	9,263	3,770	5,493	3.0
홍성군	17,866	7,279	10,587	5.9
예산군	19,104	7,924	11,180	6.3
태안군	13,510	5,515	7,995	4.4
당진군	22,491	9,291	13,200	7.4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충남은 노인인구 구조로 보아 전기노인(65~74세)이 60.3%, 중기노인(75~84세)이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도 2만1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 노인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내용	총계		전기노인 (65~74세)		중기노인 (75~84세)		후기노인 (85세 이상)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노인인구	305,345	100.0	184,066	60.3	99,615	32.6	21,664	7.1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2. 충남 노인복지 예산 및 정책 현황

2010년 충청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조 4,37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복지정책과, 도의새마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충남교육청, 경제정책과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인분야는 2,328억여 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율
충남 사회복지예산	2,437,344	100.0
저소득층 분야	59,124	2.43
노인분야	232,846	9.55
장애인 분야	67,336	2.76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181,253	7.44
이주민 분야	422	0.02
보건, 의료 분야	78,133	3.21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1,818,230	74.60

자료 : 충청남도 2010 본예산

노인복지 정책은 법정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 자체사업은 경로당 운영, 노인여가 및

교육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시설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장기요양보험지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구분된다. 노인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6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시설 지원 6.29%, 노인일자리 사업 5.72%,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5.61% 순으로 나타난다.

〈표 5〉 충남 노인복지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비율	총 사업비			기타
			국비(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	
계	296,491	100.0	193,507	29,024	76,19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78	0.09	125	125	-	법정사업
기초노령연금	204,417	68.42	164,398	8,003	32,014	법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17,079	5.72	8,539	2,561	5,977	법정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미사업	330	0.11	249	-	81	법정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5,869	1.96	4,343	762	762	법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3,542	4.53	6,771	3,435	3,335	법정사업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17,875	5.98	-	3,980	13,891	자체사업
노인여가 및 교육사업	468	0.16	-	188	278	자체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487	0.50	-	298	1,188	자체사업
노인시설지원	18,786	6.29	(8,882)	4,268	5,636	자체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518	0.51	-	379	1,138	자체사업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16,753	5.61	-	5,025	11,727	자체사업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370	0.12	200	-	170	자체사업

자료 :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

3. 노인복지시설 현황

충남의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85개소, 이용시설 5,767개소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숫자로 150개소에 2,512명의 종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은 13개소이며 14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경로당은 5,579개소가 16개 시 군에 분포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17개소에서 2,449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충남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노인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시설수	종사자수
충청남도	185	5,767	150	2,512	13	140	5,570	117	2,44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노인복지시설현황.

4. 충남 노인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1) 중앙정부 사업

정부는 노년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중 경제활동 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정부지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비,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권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치있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⁸⁾.

2) 충남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사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은 제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로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9. 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계획을 완성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총 75.8조원을 투자하며 고령화 분야는 28.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의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체계로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 참고자료」, 200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및 노인 권익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음 <표7>은 충남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 고령화 분야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 총 예산은 276억원이다. 이는 2009년도 대비 20.5% 증가한 비율로 충남 노인인구 확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비율의 확대에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충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분야 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2010 예산비율	비 고
	2009	2010		
【고령화분야】				
계	229,225	276,243	100.0	증20.5
기초노령연금	173,750	205,817	74.51	
체육활동지원	783	878	0.32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2,040	4,417	1.60	
치매노인 종합관리	132	1,114	0.40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0,418	10,664	3.86	
독거노인 보호강화	5,308	8,423	3.05	
노인학대 예방 및 효 문화 조성 등	300	272	0.10	
노인일자리 사업	12,033	17,099	6.19	
고령층 정보화 교육	16.5	10.7	0.00	
저상버스 도입	1,000	1,200	0.43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600	550	0.20	
경로당 운영 활성화	19,100	20,400	7.38	자체
노인종합복지관	3,320	4,850	1.76	자체
노인복지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45	80	0.03	자체
장수수당	368	456	0.17	자체
노인교육 프로그램 제공	11	12	0.00	자체

자료 : 충청남도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충남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14.2%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충남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점검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

이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적인 소득보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52개 과제를 담아 집행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계획의 2차년도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및 보호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지원 및 노인취업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가문화 체육프로그램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분야 중 취약 계층 고령자를 위한 자립적 주거기반을 구축하는데 3,059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4)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2010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마지막 해로 이를 평가하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 군 구에서 주민의 욕구 분석 및 정책개발을 통한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시 도 차원에서 시군구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시 도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중인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충남 16개 시 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노인복지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인프라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보호 전문기관,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및 치매상담센터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신 증축, 실버타운 설치가 요구되며, 행정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노인인력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중 한국이 자살율 1위로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자 확대 및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고, 요양서비스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전 도

민의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 기대한다.

III. 결론

충남은 전국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도심지에 배치되어 있어 농어촌 노인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 사업에 한하고 있고 미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이외에는 스스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서비스적, 문화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충남은 사회보장적 접근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구심점을 형성하여 복지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 있다든가, 사회가 부담해야든가, 혹은 노인자신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뿐만 아니라 더불어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민간영리부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 등록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a. 사회복지정책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최은희, 2008, 충청남도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2010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충청남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자료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2010,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검토조서 자료.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2010, 주요업무보고 자료.
 충청남도, 2008,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충청남도, 2009, 노인실태조사 및 DB구축.
 충청남도, 2010a, 충남비전 2010(안).
 충청남도, 2010b,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안)
 통계청, 2008a, 2007년 생명표.
 통계청, 2008b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보고서.